

# 이원

2025. Autumn

# 스케치북

: 우리들의 소식지



## 목 차

1. 이원 뉴스
2. 신규 입사자 소개
3. FOCUS\_E1
4. 소소한 T.M.I
5. 우리들의 소식지
6. 함께해요 이원퀴즈

7월

Dynatrace AI Observability가 여는  
비즈니스 혁신의 미래 세미나 개최

리더그룹 워크샵

Dynatrace AI Observability가 이끄는  
대한항공 IT운영의 미래 세미나 개최

현대오토에버 AGILE\_RWS2.0  
UI 퍼블리싱 UDA 온라인 메모 개발

SKT BSS 파일럿 프로젝트



-07.02 Dynatrace 세미나



-04.18 상반기 워크샵



-07.29 대한항공 Dynatrace 세미나



-08.27 AWS Game and Media Customer Conference

8월

메가존클라우드와 솔루션의 AWS Game and  
Media Customer Conference 참여

(주)한진 Dynatrace 갱신 계약

현대오토에버 AGILE\_CAD변환

9월

coupang Dynatrace 도입 계약  
한진칼 Dynatrace 도입 계약  
현대오토에버 Agile\_OST 기능개선

# 2025년 Autumn

## 안녕하세요. 신규 입사자입니다.

이번 2025년 가을, 새로운 사우분들이 우리 회사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신규 입사자분들이 회사에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름** 장지해 **소속** 기술연구소 **나이** 1998년생 **MBTI** ESTP  
**취미** 음악 / 영화 감상  
**나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긍정적인 마인드로 어떤 상황이든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출근 첫날 느낌**

한여름에 첫 출근을 했는데, 회사에 들어오자마자 시원한 에어컨 바람과  
함께 팀원분들이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다 같이 점심에 먹은 쌀국수와 커피도 즐거웠습니다.

덕분에 '이 회사에서 잘 적응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첫날부터 가질 수 있었습니다.

**포부**

긍정적인 마인드로 도전을 즐기며, 배우는 자세를 잃지 않고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름** 양지선 **소속** 디자인&마케팅본부 **나이** 1989년생 **MBTI** ISFJ **취미** 스포츠, 여행  
**나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함께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하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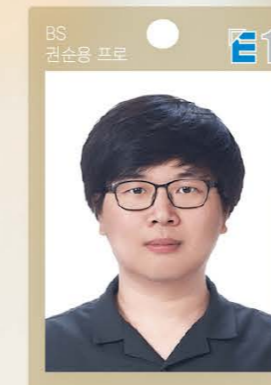
**출근 첫날 느낌**

무더운 여름날의 첫 출근은 긴장과 설렘이 함께한 순간이었습니다.

첫날이라 모든 게 낯설었지만 동료분들의 따뜻한 환영 덕분에 빠르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포부**

동료들과 원활한 협업을 통해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함께 성장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름** 권순용 **소속** BS본부 BS2팀 **나이** 1989년생  
**MBTI** ISTJ or ISTP **취미** 미니 PC 조립 및 구성하기  
**나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37살의 아이 둘 있는 컴퓨터 좋아하는 사람

**출근 첫날 느낌**

첫회사도 지식산업센터에 있던 중소기업이었어서 고향에 돌아온 느낌

**포부**

앱 전문 개발자로 입사했지만,  
풀스택 개발자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 현장의 물음을 해법으로, 기술연구소

개발에서 운영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잇는 R&D.

**Q. 안녕하세요. 사우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김선호 팀장

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 5월에 입사해 현재 8년 차를 맞이하고 있는 기술연구소 김선호 팀장입니다. 입사 당시 신입사원으로 회사 홍보 인터뷰에 참여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시간이 흘러 다시 인터뷰를 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기술 연구소 김선호 팀장

**Q. 사우분들께 기술연구소 업무소개 부탁드립니다.**

김선호 팀장

기술연구소라는 이름처럼 기술 연구도 핵심 역할이지만, 그와 함께 프로젝트 제안단계부터 솔루션 운영과 유지보수까지 현장을 든든히 뒷받침하는 다양한 일도 하고 있습니다. POC와 BMT 같은 사전 검증 과정은 물론, 고객사별 자사 솔루션인 RMS와 RA의 설치, 세팅, 유지보수와 요건에 따른 기능 개발까지 폭넓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의 변화와 트렌드에도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며 연구소의 역량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Q. 그렇다면 기술연구소의 솔루션을 활용한 프로젝트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는 무엇인가요?**

김선호 팀장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는 관세청 사례입니다. 기존에는 구버전 RMS로 한국과 중국 간 원산지 정보 교환만 가능했지만, 새로운 RMS를 통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까지 교환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이로써 여러 국가의 데이터를 한눈에 모니터링할 수 있어 품질이 개선되고, 통합 환경에서 관리가 가능해져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RMS가 실제 업무의 품질과 효율성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 사례라 생각합니다.

**Q. 팀장이 되신 지 이제 약 9개월 정도 되셨다고 들었는데요. 그동안 느끼신 점이나 앞으로 팀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싶으신가요?**

김선호 팀장

팀장으로 역할을 맡은 지 아직 오래되진 않아, 아직도 미성숙하고 배우는 게 많습니다. 그동안 느낀 점은 팀 운영에는 분명한 체계와 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일을 추진할 때 순서와 기준을 세워, 기술연구소만의 정형화된 방식을 함께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팀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 가장 큰 바람입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 결국은 다 같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연구소로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Q. 연구원에서 팀장까지 오시면서, 전환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었나요?**

김선호 팀장

지난 8년을 돌아보면 직급이 바뀔 때마다 자연스럽게 전환점이 찾아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원 시절에는 맡은 업무를 성실히 해내는 것이 최우선이었다면, 선임과 책임으로 올라가면서는 회사와 주변을 더 살피고 팀의 성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팀장이 된 이후로는, 기술연구소팀 전체가 함께 성장하고 성과를 내는 것이 더 큰 책임으로 다가왔습니다. 결국 저에게 가장 큰 전환점은 프로젝트가 아니라, 주어진 책임이 늘어날 때마다 스스로 한 단계씩 달라져야 했던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Q.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기술연구소 목표가 궁금합니다.**

김선호 팀장

연구소의 목표는 기존 RA, RMS 같은 자사 솔루션의 개발과 유지보수에 머무르지 않고, 그 기반 위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넓혀 가는 것입니다. 아직 정리하고 정립해야 할 것들이 많지만, 장기적으로는 회사가 미래에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꾸준히 기술을 연구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요즘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AI 분야에 관심이 큼니다. 단순히 모니터링이나 데이터를 주고받는 수준을 넘어, AI를 통해 분석하고 예측하며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에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이런 시도가 모이면, 연구소가 회사의 든든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술연구소 정의진 프로

기술연구소 정지혜 프로

기술연구소 김정은 프로



**Q. 안녕하세요. 사우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김정은 프로

안녕하세요, 기술연구소 김정은 프로입니다. 저는 신규 기능 기획 및 개발, 기존 시스템 개선, 유지보수 등 RMS 모니터링 시스템의 전반적인 웹 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 정의진 프로

안녕하세요. 이번 연도 1월 2일 자로 입사한 기술연구소 정의진프로입니다!  
주로 RA와 DAEMON 등 자사 솔루션의 Backend 파트를 맡고 있습니다.

### 장지해 프로

안녕하세요! 지난 7월에 입사한 기술연구소 막내 장지해입니다.  
현재 김정은 프로님과 함께 RMS 솔루션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번 RMS 업그레이드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배우면서도 활발하게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 Q. 기술연구소에서 일하면서 좋은 점, 혹은 재미있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김정은 프로

기술연구소에서 일하면서 다양한 기술들을 접해볼 수 있는 점이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상치 못한 이슈들이 자주 생기긴 하지만,  
그만큼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 정의진 프로

연구소에서 가장 좋은 점은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시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연구보고서를  
작성하며 최신 기술을 직접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점이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 장지해 프로

저희 팀에는 '맛집 도사'분들이 계셔서 점심이나 회식을 할 때 맛있는 곳은  
절대 가지 않는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업무적으로도 먼저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제가 질문하면 항상 성심껏 답해주셔서 '친절 농도 짙은 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고, 업무적으로도 많이 챙겨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Q. 기술 연구소를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기술연구소는  
회사의 기술 기반을  
튼튼하게 지켜내는 팀이라  
생각합니다.  
-선호 팀장-

기술연구소는  
솔루션의 생명주기를  
책임지는 팀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경은 프로-

자사 솔루션을 직접 다루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재미와 보람을 느끼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의진 프로-

기술연구소는  
가장 젊은 시선으로  
내일을 그려갑니다!  
-지해 프로-

소소한 T.M.I

# 가을 맞이, 지구 대청소



플로깅이란?  
'이삭을 줍다'라는 뜻의 스웨덴어  
plocka upp + 조깅(jogging)의 합성어로,  
조깅하거나 산책하면서 길거리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 친환경 운동 챌린지이다.

### 플로깅 챌린지, 세 번째 이야기

ESG 경영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플로깅 챌린지,  
이번에는 회사 건물 근처를 산책 겸 실천해 보았습니다.  
점심시간에 소규모 팀으로 나눠 진행하며, 일상 속에서 가볍게 이어갈 수 있다는  
장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챌린지였던 만큼, 준비와 참여가 한층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준비물을 스스로  
챙기고, 코스를 제안하거나 분리수거 지점을 먼저 찾아 공유하는 적극적인 모습이  
어쩌면 ESG 실천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플로깅 챌린지는 올해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진행 중이며,  
이번 가을호에서는 세 번째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다음 호에서는 네 번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선선한 바람 속, 잠깐의 걸음으로 만드는 변화를 앞으로도 함께해 주세요.



2025년 9월 23일 화요일, 플로깅 챌린지 세번째

가을은 딱 야외 스포츠 즐기기 최고죠. 포스트시즌으로 더 뜨거워진 대세 스포츠 '야구', 잘 몰라서 망설였던 사우분들을 위해 이번 사보가 가을 맞이 간단한 야구 입문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 야구 추천 가이드북

## Rule

경기 인원 : 각 팀당 9명의 선수. ( 선수 교체 횟수 제한 x, 교체된 선수는 경기 다시 참여 불가 )

경기 운영 방식 : 두 팀이 공격과 수비를 번갈아가면서 진행. 매 회 공격팀에서 타자 3명이 아웃되면 공수 교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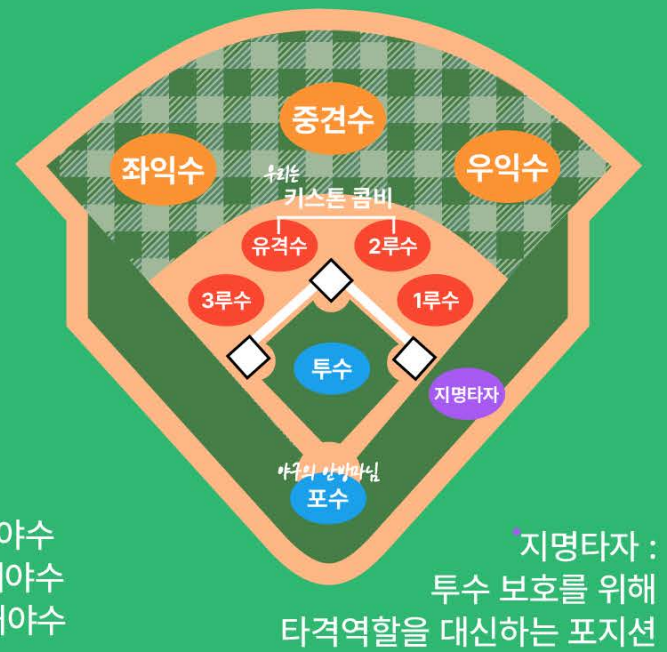
- 1, 스트라이크 3번 쌓이면 아웃
2, 타자가 친 공이 땅에 닿기 전에 수비수가 잡았을 때
3, 땅볼 친 타자보다 1루 베이스를 밟은 수비수에게 공이 먼저 갈 때
4, 두 스트라이크 이후 번트를 시도했을 때 파울되면 아웃

## 용어 총 정리

투수 : 포수에게 공을 던지는 선수

포수 : 홈을 수비하며 투수의 공을 받는 선수

- 좌익수 : 2루와 3루 사이의 외곽을 수비하는 외야수
우익수 : 1루와 2루 사이의 외곽을 수비하는 외야수
중견수 : 좌익수와 우익수 사이를 수비하는 외야수
1루수 : 1루 베이스를 중심으로 그 주변을 수비하는 내야수
2루수 : 2루 베이스를 중심으로 그 주변을 수비하는 내야수
3루수 : 3루 베이스를 중심으로 그 주변을 수비하는 내야수
유격수 : 2루와 3루 사이를 수비하는 내야수



지명타자 : 투수 보호를 위해 타격역할을 대신하는 포지션



TS본부 박은환 본부장

## 우리팀 소개

BI본부 BIS팀 이유리 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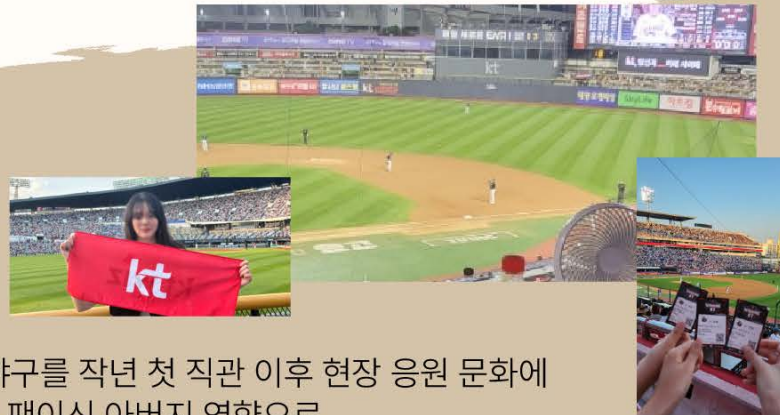
어린 시절 아버지와 TV로 분위기만 즐기던 야구를 작년 첫 직관 이후 현장 응원 문화에 푹 빠져 본격적으로 즐기게 되었습니다. 두산 팬이신 아버지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두산을 응원하려 했지만,,, 집에서 가까운 구장에서 처음 본 KT 경기에서 극적인 역전승을 직접 보고 케이티위즈 팬이 되어버렸습니다 ㅎㅎ

작년 추석 연휴엔 시야제한석까지 매진된 가운데 부모님과 직관했는데, 평소 TV로만 보시던 아버지가 현장 분위기에 완전히 빠져서서 정말 즐거워하셨어요. 그날 경기는 졌지만 가족과 함께 보낸 시간이 정말 특별했습니다.

친구들이랑 갈 땐 응원지정석에서 응원가 부르며 즐기다 오는 편인데 중계 카메라에 잡혀서 부끄럽기도 하고 웃음 나는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직관의 재미는 응원만이 아니죠, 먹거리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위딱하면 보영만두와 진미통닭이 명물이라 풀면 중간만두+튀김만두 혹은 진미통닭+맥주 조합 추천합니다!

지금은 5등인 케이티위즈 과연... 사보가 올라갈 때쯤 가을야구를 하고 있을까요..? 😊



2017년, LA 다저스의 류현진 선수를 응원하면서 메이저리그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쉽게도 부상으로 경기에 자주 나서지 못하던 때였지만, 곧 오승환 선수가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마무리로 합류했고 그 순간부터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한화의 류현진, 삼성의 오승환, 롯데의 이대호, 두산의 김현수, KT의 황재균, 키움의 박병호와 강정호... 한국에서 뛰던 선수들이 MLB에 도전하는 모습을 따라가다 보니, 어느새 제 야구의 중심은 자연스럽게 MLB가 되었습니다.

저는 '직관' 대신 '직TV'를 택합니다. 응원과 경기 자체를 온전히 즐기기에 집이 최고의 1열이라 믿어요. 해설을 놓치지 않고, 리플레이를 마음껏 되감고, 작은 디테일까지 집중할 수 있으니까요. 유니폼이나 굿즈는 따로 없지만, 리모컨과 간식이면 준비 완료입니다. 경기장 명물 대신 집 냉장고 속 소소한 간식이 제게는 최고의 볼파크 푸드죠.

야구의 매력은 '순간의 예감'에 있습니다. "이 선수, 홈런이다" 하고 속으로 중얼거렸는데 정말 담장을 넘기는 장면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화면 너머로 전해지는 타구음, 타자의 스윙 궤적, 투수의 표정까지 종합해 짚는 직감이 맞아떨어질 때의 짜릿함, 그 한 번이 하루의 피로를 싹 잊게 만듭니다.

이 응원의 시간은 가족과도 이어졌습니다. 중학생이던 아들이 "나도 야구를 해볼래"라고 말하던 날, 우리는 함께 글러브를 샀고, 아들은 1년 반 동안 진지하게 운동을 했습니다. "언젠가 MLB 무대에 서고 싶다"는 꿈도 꾸었죠. 지금은 취미로 즐기고 있지만, 밤마다 함께 보던 경기, 홈런이 터질 때의 탄성, 스트라이크아웃에 주먹을 불끈 쥐던 순간들은 여전히 우리 사이의 단단한 연결고리입니다.

시즌은 바뀌어도 응원은 계속됩니다. 오늘도 저는 TV 앞에 앉아 한국 선수들(이정후, 김혜성)의 이름을 조용히 불러봅니다. "좋아, 이번 타석은 꼭." 그리고 또 한 번, 그 짜릿한 예감이 현실이 되기를 기다립니다.

① 기술연구소 장지해 프로

작년, 우연히 찾은 광주-챔피언스필드에서 야구를 처음 직관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그라운드를 가르는 타구 소리, 응원가의 리듬, 낮선 이들과도 금세 하나가 되는 응원석의 온기까지 취업 준비로 쌓인 스트레스가 신기하게도 풀렸습니다. 그렇게 야구는 제 일상에 작은 숨구멍이 되어 주었습니다.

팀을 정한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전라도 출신인 아버지는 늘 "야구는 기아지"라고 말씀하셨죠. 2017년 한국시리즈 우승 순간, 아버지와 족발을 먹으며 TV 앞에서 환호했던 기억은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날의 짜릿함과 행복이 제 팀을 정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기아를 응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구장에 일찍 가는 걸 좋아합니다. 출근하는 선수들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고, 운이 좋으면 사인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특히 외국인 선수들의 팬서비스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팀의 제임스 네일 선수를 두 번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첫 만남에서는 긴장한 나머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만남에서는 용기를 내어, 예전에 함께 찍었던 사진을 보여주며 영어로 "나 기억해?"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네일 선수는 환하게 웃으며 다시 한번 사진을 찍어 주었고, 그 짧은 순간은 제 마음속에 오래도록 특별한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올해 기아 어린이날 유니폼이 '티니핑'과의 콜라보였는데, 외국인 선수 위즈덤의 한국 이름이 '지혜'라서 '지혜핑'으로 네임마킹을 주문했습니다. 제 이름과 발음도 비슷해서 더 애착이 갔고, 운 좋게 사인까지 받아 소중한 응원복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도 그 유니폼을 입고 열심히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ㅎㅎ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작년 한국시리즈 2차전 직관입니다. 좋아하는 김도영 선수의 홈런이 터졌고, 여유 있는 점수 차로 이겨서 그야말로 짜릿했죠. 정규시즌과는 다른 분위기와 앉아 있을 틈조차 없었던 그 열기 속에서, "들어오기 전에 밥 먹길 잘했다"는 생각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릅니다. 다음에 기아가 다시 한국시리즈에 오르면, 어떻게든 또 직관하고 싶어요.



야구를 볼 때 늘 즐겁기만 한 건 아니지만, 이제는 제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한 스포츠가 되었어요. 기아 타이거즈 파이팅! 내년에는 더 잘해서 우승 한번 더 노려보자!!!

아 맞다! 기아의 홈그라운드 구장은 광주 챔피언스필드입니다. 크림새우가 굉장히 유명하니 꼭 드셔보세요! 크림새우, 칠리새우 반반으로 먹기보다는 크림새우로만 드시길 추천합니다!



① TS본부 TS팀 조형석 팀장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야구를 하는 것도 보는 것도 좋아했어요. 본격적으로 특정팀을 응원하면서 프로야구를 봤던 건 94년이었고 당시 친구를 따라서 LG Twins를 응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해에 LG는 우승을 했고 더욱더 팀에 애착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어요.

하지만.....!!!!!!! 이후 LG는 무려 29년 동안 우승을 하지 못했어요! 2023년 11월 그 해 드디어.. 10살 처음 팀을 응원하면서 우승했고 20.. 30을 넘어 40세가 되어서야 다시 우승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휴대폰으로 실시간 사진을 찍었고 한 동안 카톡프사였습니다. 이 팀을 응원하면서 가장 기뻐던 순간이었던 거 같습니다. 이후 작년에는 우승은 못했지만 3등을 했고 올해는 10 경기도 안 남은 상황에서 다시 우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죄송해요!)

모든 스포츠가 그렇지만 LG를 응원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희로애락을 느끼고 애증의 관계가 된 것 같습니다. 야구는 룰이 복잡하고 모르면 너무 어려운 스포츠지만 저는 야구를 전혀 몰라도 야구의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선수 개개인의 응원가 문화, 맛있는 음식거리, 많은 공연 등 야구장 직관의 매력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회사 동호회에서 야구장 직관 콘텐츠로 동료들과 함께 즐기는 문화가 생겼습니다. 야구를 모르는 동료, 처음 직관 하는 동료, 응원하는 팀이 다른 동료.. 모두 상관없이 야구 자체를 즐기고 직관문화 자체를 즐기는 것이 하나의 즐거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병헌프로는 치어리더만 계속 보고 있던데...)



마지막으로 LG Twins 화이팅! 2025년 우승을 기원하고 응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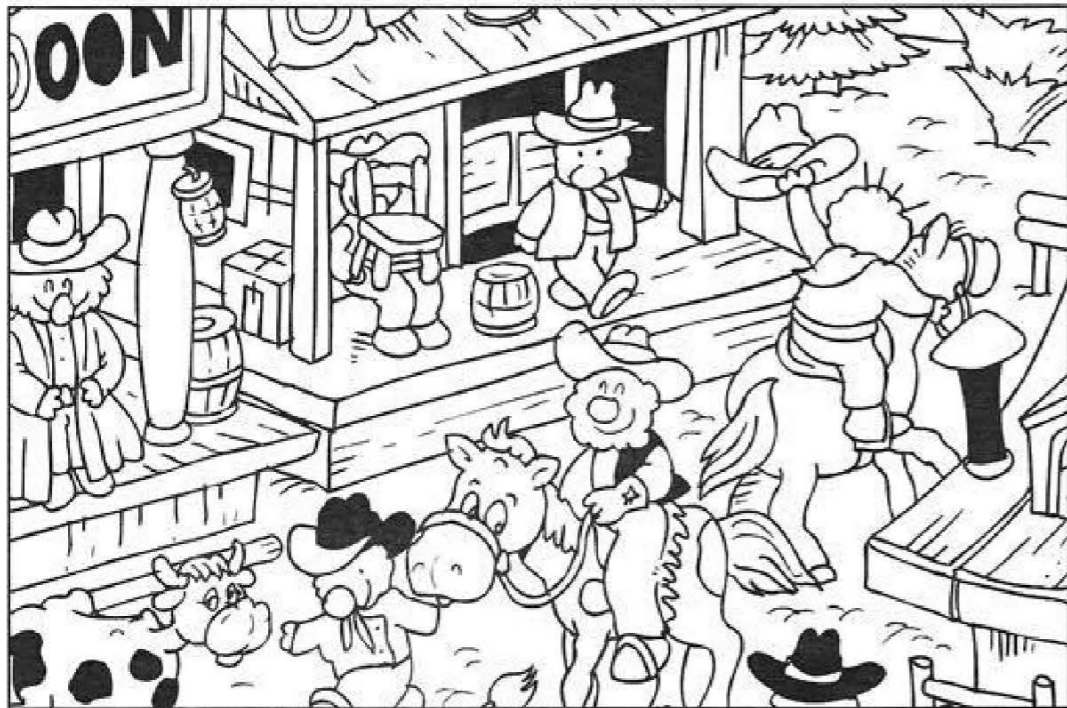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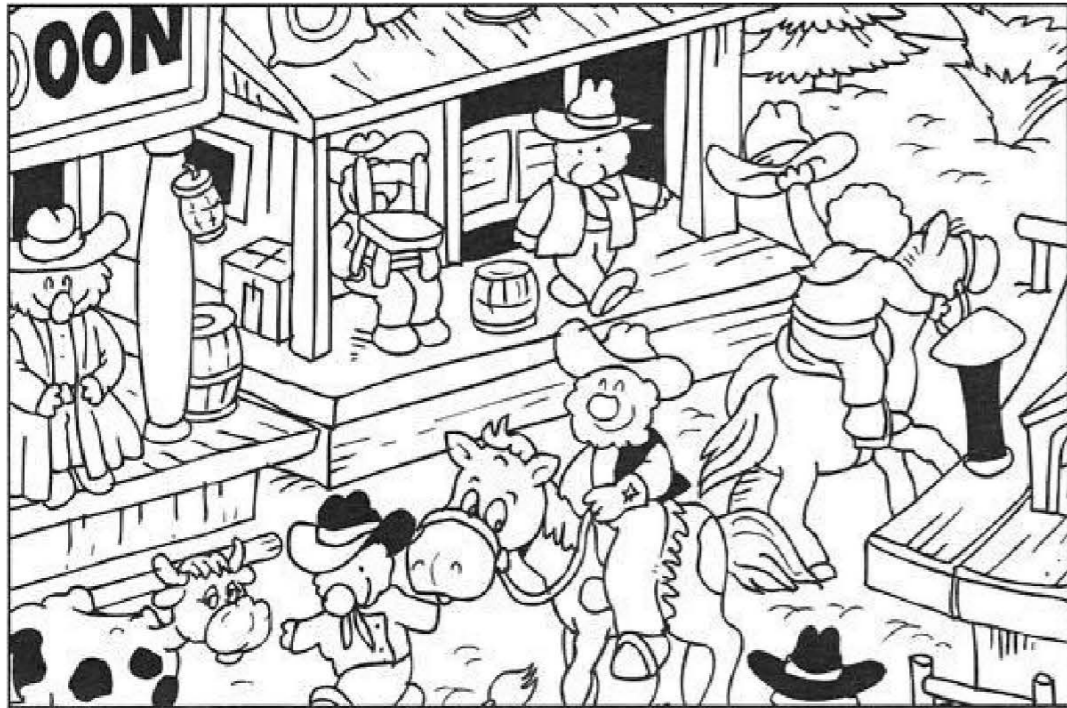
P.S. 강가영팀장님! 롯데도 내년에는 34년 만에 우승에 도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장님 죄송합니다. 올해 우승은 한화가 아니고 LG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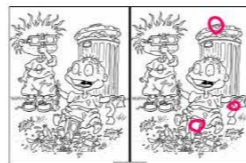
함께 해요  
이원 퀴즈 Vol.10

사우분들을 위한 코너, 가로세로 이원 퍼즐이  
2025년을 맞아 새롭게 찾아왔습니다.  
사보 관련 퀴즈와 함께, 다양한 상식 퀴즈까지!  
초성퀴즈부터, 객관식 퀴즈 등 여러 가지의 퀴즈 유형을 즐겨보세요.

**1** #그림 퀴즈 이 중 다른 곳 6개를 찾아주세요.



**\* 정답 제출 예시**  
해당 이미지 캡처 후,  
찾은 내용을 표기해  
보내주세요!



**2** #객관식 퀴즈 기술 연구소의 업무가 아닌 것은?

- ① POC
- ② BMT
- ③ 타임머신 개발
- ④ 유지보수

**3** #단답식 퀴즈 가을 플로깅을 한 날짜는?

**4** #단답식 퀴즈 이번 분기 신규 입사자 한 분이 응원하는 프로 야구팀은 어디인가요?

<2025년도 여름 사보 정답>

- 1. 소아암환우
- 2. 목성
- 3. 2
- 4. 1
- 5. 3
- 6. 윤혁준 프로
- 7. 40세 이상 직원
- 8. 3
- 9. 2
- 10. 김선호 팀장
- 11. 4

참여 방법

1. 이원 퀴즈 답변을 메일에 작성.
2. 메일 제목은 '2025년 가을 사보 퀴즈 정답 제출' 로 작성 후,  
사보 담당자에게 메일 보내면 참여 완료. 꼭 모두에게 보내주세요.  
( 사보 담당자 : 디자인 마케팅 본부 원근호 본부장, 정유나프로 )

\*객관식 문제는 객관식으로 답해주세요. 객관식 문제의 답변을 주관식으로 보내주시면 오답처리 되오니 주의바랍니다.

참여 기간

10월 23일 목요일까지 참여해 주신 분들에 한하여  
추첨을 통해 다섯 분께 3만원 상당의 선물을 드립니다.